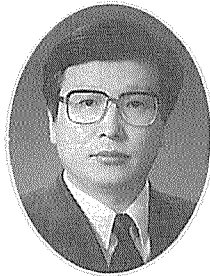


석유
시론



산유국과의 자원협력강화 방안



安 哲 植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서기관〉

I. 머리말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래 우리 인류의 중요한 관심 사중의 하나는 에너지 문제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인류문명의 발전과 함께 에너지원은 신탄→석탄→석유→원자력, 태양열 등으로 변천해 온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이러한 에너지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에너지원은 아직까지 석유가 제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에너지중 석유의존도가 제일 높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석유는 우리 인류가 금세기 들어 2차례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면서 그 중요성을 더했다. 즉 석유의 안정확보는 국가의 존립과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될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까지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만큼 석유는 우리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그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석유사정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석유 부존자원이 전무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수요는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루에 약 170만배럴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장충체육관 약 4개에 들어가는 석유의 양을 하루에 소비하는 엄청난 양이다. 따라서 석유의 안정적·경제적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의 석유에 대한 인식도는 어떠한가? 아마도 '80년대 중반이후 석유시장의 안정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요즘 석유를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물량을 구할 수 있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세계 석유시장의 상황은 그 특성상 우리가 석유를 안정

적 경제적으로 확보하기에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석유는 고갈성 자원으로서 그 부존지역이 중동지역에 편재되어 있고 이 지역은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불안정성을 잉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들 국가들은 석유자원 무기화를 급진전 시키고 있어 언제 불안정 국면이 나타나서 제3의 석유위기가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이 곤란하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석유의 안정적·경제적 확보를 위해 산유국과의 협력관계를 평시에 돈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산유국과의 자원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우리와 산유국간의 자원협력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짚어본뒤 마지막으로 산유국과의 자원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II. 산유국과의 협력강화 필요성

석유는 우리 경제의 필수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석유수급 안정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요 석유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의 대부분이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비상시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우리의 석유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석유의 안정적·경제적 확보는 우리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석유시장의 동향을 보면 석유자원부존의 지역적 편재, 산유국의 자원 내셔널리즘 경향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석유자원의 점진적인 고갈과 함께 산유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미구에 제3의 석유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즉, '94. 9. 26 세계석유회의(WPC)에서는 제3차석

국내 석유수요의 증가추이

	'90	'91	'92	'93	'94(잠정)	'95(전망)
수요량(천B)	356,349	424,666	514,224	564,535	621,944	672,719
(증가율%)	(24.1)	(19.2)	(21.1)	(9.8)	(10.1)	(8.2)
수입액(백만\$)	9,009	10,172	12,104	12,421	12,242	14,100
(증가율%)	(58.1)	(12.9)	(19.0)	(2.6)	(△1.4)	(15.2)
석유의존도(%)	53.8	57.5	61.8	61.9	62.9	63.0

유과동을 경고한 바 있고, 일본 석유공단(JNOC)의 조사에서도 향후 5~7년 이내에 3차 석유위기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일본과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볼때 향후 우리가 석유를 안정적·경제적으로 확보할 여건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석유수입국가로서는 석유의 안정적·경제적 확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유국과의 협력강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국제석유시장이 상당기간 안정세를 지속함에 따라 자원외교에 대한 관심이 해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미래의 석유위기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산유국외교를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Ⅲ. 산유국과의 자원협력활동 현황 및 문제점

1. 자원협력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우리가 석유자원의 안정적·경제적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산유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평상시 산유국과의 상호방문 또는 초청, 자원협력의 구성·운영등 여러가지 형태의 자원협력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산유국과의 자원협력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제 1, 2차 석유과동을 겪으면서 동력자원부를 신설할 만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가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세 지속에 따라 우리는 석유자원이 안정적 확보가 우리 경제상 얼마나 중요한지 무감각해져 산유국과의 자원협력에 대한 관심이 해이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계석유사정은 또다른 석유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산유국과의 자원협력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여 요즈음과 같은 자원안정시에 산유국과의 자원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산유국과의 상호방문 및 초청활동의 적극성 미흡

산유국과의 평상시 자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중 대표적인 수단은 산유국에 자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방문활동을 수행하거나 산유국의 주요인사를 초청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우리가 산유국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활동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극성을 띄지 못하고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우리가 2차례에 걸친 석유과동을 경험한 이후 산유국과의 상호방문 및 초청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적도 있으나,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세계석유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소홀히 하고 미온적으로 추진해옴으로써 석유위기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90년 이후 우리 정부의 고위급인사가 중동산유국을 순방한 실적이 거의 없는데 비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소비국들은 정부고위급 인사가 정례적으로 중동산유국을 순방하거나, 산유국 인사를 공식초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산유국과의 상호방문 및 초청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성해야 할 또다른 문제점은 상호방문 및 초청활동이 현안사항 뿐만 아니라 미래의 협력가능 분야까지도 포함하여 사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다. 즉 이러한 초청·방문활동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거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산유국과의 공고한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산유국과의 방문 및 초청외교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자원협력위등 산유국과의 쌍무협력채널의 활성화 미진

산유국과의 자원협력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산유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 「공동위원회」 등 쌍무협력 채널을 활성화 하고 주재공관에 파견된 상무관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산유국과 「자원협력위」, 「공동위」 등의 쌍무협력채널을 설치하고 있다. 이중 「자원협력위」는 현재 인니, 호주, 러시아, 필리핀 등과 설치되어 있고, 「공동위」는 사우디,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리비아 등과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사우디, 쿠웨이트, 인니 등 일부 산유국에 상무관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설치·운영면을 관찰해 보면 「자원협력위」의 경우 매년 정례적으로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자원협력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공동위」의 경우 통상 문제등 여러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이므로 통상 3~4년에 한번정도 개최되고 있어 평상시 산유국과의 자원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산유국과의 자원협력은 자원분야에 특화된 「자원협력위」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자원협력 잠재력이 큰 산유국과는 이의 확대가 요청된다.

또한 「자원협력위」의 경우 그 운영이 형식적·의례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산유국과 장기적인 협력관계 정립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중동등 주유산유국의 경우는 문화의 특성상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공식적인 경로보다 중요시되고 있으나 정부 및 민간부문 공히 실무진의 협력채널이 거의 전무하여 수시로 현안사항을 탄력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상무관 활동도 통상 및 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에너지·자원

자원협력위등 쌍무국 협력체 설치현황

	개최실적	장 소	우리나라 수석대표('95개최 여부)
한·인니 자원협력위	제15차('94)	자카르타	통상산업부 장관('95 : 서울예정)
한·호 "	제11차('94)	서울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장('95. 5. 2~3 : 호주)
한·러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장('95. 5월경 : 서울예정)
한·필리핀 "	제10차('94)	서울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심의관(미정)
한·사우디 공동위	제10차('94)	서울	외무부 차관(미정)
한·이란 "	제 4차('91)	서울	통상산업부 장관('95 하반기 테헤란개최 추진중)
한·카타르 "	제 2차('86)	도하	외무부 중동국장(미정)
한·쿠웨이트 "	제 1차('86)	서울	외무부 중동국장(미정)
한·리비아 "	제 2차('91)	트리폴리	건설부 차관(미정)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유국과의 자원협력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요 산유국과의 「자원협력위」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동 협력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실무진간 협력 채널의 설치 및 상무관의 파견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활용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에너지·자원분야의 국제회의 및 기구에서의 활동 미흡

산유국과의 자원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원분야의 국제회의 또는 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국제회의 및 기구에서의 가입 또는 참여활동등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현재 에너지·자원분야의 중요한 국제회의중 WEC(세계에너지회의), IGU(국제가스연맹) 등에는 우리가 가입하고 있으나, IEA(세계 에너지회의), WPC(세계석유회의) 등에는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 국제기구 및 회의에서의 참석활동 면에서도 일부회의에는 참여활동을 하고 있으나 유관기관 전체가 유기적인 참여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

며 참여하더라도 산유국 유력인사와의 친분 및 유대강화를 유지하는데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자원정보 수집 및 이의 활용 등의 측면에 있어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된다.

따라서, 에너지·자원분야의 국제회의 및 기구에서의 참석 및 가입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방안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 산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추진등 미약

산유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유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원보유 산유국과 자원공동 탐사 및 개발, 자원지질공동조사 등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협력등 기술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산유국등 자원보유국 23개국에 62개사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인니 등 개도국과 자원공동지질조사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사업은 아직 유치단계에 있어 산유국과의 장기적인 협력유대 관계를 정착시키기에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유국등 자원보유국과 에너지·자원분야의 협력사업을

석유가스분야의 주요 국제기구 및 회의 현황

	기구 및 회의명	개요	비고
생산국	OPEC(석유수출국기구)	· 세계석유수출 12개국 협력체	· '60년 설립(본부: 비엔나)
	OAPEC(아랍석유수출국기구)	· 아랍지역 석유수출국 11개국 협력체	· '68년 설립(본부: 카이로)
소비국	IEA(국제에너지기구)	OECD산하독립기구로 석유소비국 협력체 (현재 25개국 가입)	· '74년 설립(본부: 파리) · '96년 정회원 가입예정
생산국 +	WEC(세계에너지회의)	· 각국 에너지관련 기관·업계의 대표기관이 참여하는 국제민간기구 (현재 100개국 가입)	· 1992년 설립(본부: 런던) · 기 정회원 가입
	IGU(국제가스연맹)	· 각국 가스업계대표단이 참여하는 국제민간기구(현재 53개국 가입)	· 1930년 설립(본부: 화관) · 기 정회원 가입
소비국	WPC(세계석유회의)	· 각국 석유관련 기구·업계를 회원으로 하는 대표기관이 참여한 국제민간기구 (현재 46개국 가입)	· 1933년 설립(본부: 런던) · '97년 정회원 가입예정

보다 활성화 하는 것이 요청된다.

6. 산유국 유력인사와의 친분관계 지속유지 및 사후 관리 미흡

산유국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석유위기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산유국 유력인사와의 끈끈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동안 산유국과 자원협력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석유자원담당관들의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산유국 주요인사와의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상호방문 또는 초청시 접촉한 주요인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이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이들을 대 산유국외교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유국 유력인사 또는 방문·초청시 접촉한 산유국 Counter Part와의 끈끈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공식초청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IV. 산유국과의 자원협력강화 방안

1. 기본추진방향

산유국과의 자원협력강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의 기본추진방향은 우선 자원의교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별 산유국의 석유사정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원협력 활동을 전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동, 아프리카 등과 같이 현재 우리의 석유 의존도가 큰 지역의 산유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자원협력활동을 추진하고, 남미, 러시아등 향후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의 산유국에 대하여는 장기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며 나아가 미국, 서부유럽등 대 석유소비국과는 석유정보 교환, 대 산유국 공동대응등 소비국 차원에서의 상호협력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유국과 자원협력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식채널과 민간부문의 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하여 전국가적으로 자원협력 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내 산유국 전문가 현황을 파악하고 양성하여 이들이 관, 산, 학, 연등과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상급에서 지적인 산유국과의 자원협력 활동상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의교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원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전문가 양성

우리의 경우 산유국과의 자원협력 활동을 강화하기

주요 에너지·자원협력사업 추진동향

협력사업 내역	협력 대상국	주진업체 (기관)
○ 해외자원개발 진출	석유 등 13개 광종 62개 사업, 예멘, 인니 등 23개국	유공, 삼성, 현대등
○ 자원이질공동조사	중국, 호주, 필리핀, 인니, 베트남	한국자원연구소, 광진
○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타당성 공동조사 실시	러시아, 야쿠트자치공화국	대우, 유개공, 유공등 8개 기업 콘소시엄
○ 발전 및 광산분야 기술 지원	베트남, 몽골	한전, 한국중공업, 광진
○ 정유공장, 주유소등 합작진출	중국, 러시아, 벨기에	유공, 쌍용정유, 한화에너지, 대우
○ 천연가스 장기도입 협상	인니, 브루나이, 말련, 카타르 등	가스공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원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능동적인 자원협력활동」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할 필요가 있고, 산유국 전문가를 시급히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업계, 연구소, 학계 및 관련 단체등의 협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별·산유국별 자원협력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이 그룹을 활용하여 정례적으로 성공사례, 정보교환등을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인 자원협력 활동계획을 수립,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산유국의 석유사정 및 석유정책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별·산유국별로 석유·가스자료 현황 및 정책등을 책자로 정리하여 산유국별 *Country Paper*를 발간·배포하고 이를 우리의 협력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상호방문 및 초청활동의 정례화

산유국과의 자원협력 및 상호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산유국과의 상호방문 및 초청활동을 정례화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민 합동 「자원협력 강화 사절단」을 정례적으로 파견하는 한편 에너지·자원 관련부서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층이 산유국 순방 및 산유국 유력인사의 공식초청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무차원의 협상력 증진을 위하여 정부, 업계 및 관련기관등의 실무선에서도 상대국실무선과의 친분관계를 설정 유지토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상산업부가 금년중 장·차관의 인니, 말린, 브루나이,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 동남아 및 중동 산유국의 방문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다.

4. 자원협력위등 쌍무 협력채널의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

「산유국과의 자원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유대관계를

단독히 하기 위해서는 자원협력위등 쌍무협력 채널의 활성화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따라서 말린, 이란, 사우디등 협력 잠재력이 큰 산유국과는 정부차원의 「자원협력위」설치를 추진하되 이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현행 「공동위」내에 「자원협력분과위」를 설치하거나 석유·가스 분야의 실무급 대화 창구를 별도로 개설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원협력위」운영면에서는 업계의 현안사항 및 미래 협력가능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자원협력위」정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타결하고 아울러 산유국 주재 상무관, 무역관 등의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을 통해 산유국 주요 인사의 동정 및 석유정보 등을 정례적으로 본국에 송부토록 하는 등 협력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요 산유국의 석유성 및 국영석유회사에 우리부직원 및 업계직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정부차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업계가 산유국의 국영석유·가스회사와 정례적협력 채널을 개설하고 협력방안을 강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등을 통한 협력활동 강화

산유국과의 자원협력강화를 위하여 석유등 에너지·자원분야의 국제기구가입 및 국제회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그 참석결과를 에너지 관련부서 및 유관업계와 공동협력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에너지·자원분야의 국제기구 및 회의중 OPEC, OAPEC 등 생산국 회의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이나 이들 기구 및 회의의 동향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 이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세계 석유시장 및 산유국 동향에 대해서도 일일 또 주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산유국과의 협력강화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소비국 또는 생산국+소비국 모임인 IEA, WPC, WEC, IGU등의 회의에 대하여 자원협력관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이

들 기구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효율적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유관협회 및 단체간 참석분담 체제를 구축하고 그 참석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WEC, IGU 등 우리가 정회원으로 가입된 회의에 대해서는 그 정례회의를 국내에 유치·추진하고 우리가 미가입된 IEA, WPC 등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정회원 가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IEA에는 '96년, WPC에는 '97년 가입을 목표로 사전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6. 산유국등 자원보유국과의 자원분야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우리가 산유국과의 자원협력기반을 공고히 하여 자원을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와의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원협력 잠재력이 큰 자원보유국과 자원·지질공동 조사 및 석유탐사·개발타당성 공동조사등을 확대하여 유망자원을 선점 확보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유국과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산유국의 상·하류 부문(유전개발, 정유공장 합작진출등)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제3국에 산유국과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상호 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기반을 구축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7. 산유국의 유력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

산유국과의 자원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시 이들 국가의 유력인사와 유대관계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유국 유력인사에 대한 현황을 파

악하여 종합관리하고 이들과 정례적인 방문 및 서신교환을 추진하고 업계와 공동 초청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평상시 상호 유대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업계를 방문하는 산유국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고위층면담 주선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산유국 전문가를 적극 파견하여 종합 관리하고 자원협력 외교시 이들을 동참토록 하여 산유국 유력인사와의 친분강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우리는 '70년대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당시 국내 유가를 일시에 두배이나 약 60% 인상하는 충격을 겪었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도 타격을 받았다. 이에 '78년에는 에너지·자원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 위기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에너지·자원 전담기관인 동력자원부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세계에너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에 대한 우리의 관심 및 시각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에너지·자원을 일반상품과 같은 경제재로 보는 시각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로써 '93년에는 동력자원부가 폐지되고 에너지·자원 관련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시장의 구조 및 향후 전망을 볼 때 우리나라는 결코 에너지·자원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석유의 경우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의 필수 에너지원이 아닌가?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산유국과의 자원협력강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아무쪼록 본고가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산유국과의 자원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